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5. 9. 1.(월)

산업부는 국방부, 지자체,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

<보도내용>

- '25.9.1.(월). 한국경제 「“中에 군사기밀 열어준 셈”…해군, ‘서해 안보’ 경고한 이유」 기사는,
- “산업부가 허가한 해상풍력단지 상당수가 해군의 작전성 평가 과정 없이 선정되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신청시 지자체는 국방부와 군 작전성 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바, 해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-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찰 선정시 안보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안보 민감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국방부, 지자체, 사업자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에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재생에너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 권기만	(044-203-5380)
	재생에너지보급과	담당자	서기관 노진만	(044-203-5381)